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기획전 4월 10일까지 연장

기획전시 '기억의 윤리, 평화의 언어' 시민들 큰 호응
김대중-한강 노벨상-광주-5·18 소재 문학과 사진 엮어
광주가 간직한 기억의 자원 윤리·평화로 입체적 조명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기억의 윤리, 평화의 언어' 기획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기획전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당초 2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실천과 광주와의 역사적 연대, 한강 작가의 문학 속 폭력과 상처의 기억 그리고 5·18 사적지를 기록해 온 지역 사진작가들의 시선을 하나의 서사로 엮었다.

이를 통해 광주가 간직한 기억의 자원이 오늘날 윤리와 책임, 평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관람객이 기억·윤리·평화에 대한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은 전시가 일방적 전달

에 그치지 않고 시민 개개인의 성찰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박물관은 시민의 호응과 기획전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더 많은 시민이 전시를 관람하고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 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가 이뤄낸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작가의 성취를 함께 조명하며 그 가치가 오늘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광주의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마주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연장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 안전 관리와 전시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민주·인권·평화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그림책 속 도선국사, 왕인박사 만나러 오세요

영암도서관 '그림책으로 만나는 영암의 옛이야기' 전시회

영암군이 4일부터 3월말까지 영암도서관에서 '그림책으로 만나는 영암의 옛이야기' 전시회를 연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찾아 그림책을 보며 지역의 역사·인물·자연을 알며 자긍심을 느끼고, 책과 가까워지도록 마련된 전시다.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사업은 영암군 각지의 향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암군이 도서관 책마을해리와 협업을 통해 제작해 나가고 있는 콘텐츠 사업이다.

16권 발간을 목표로 지난해 말까지 제작된 총 7권의 그림책들은, 지역 옛이야기를 소재로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회에 오면 <열두 번 노는 날> (바위틈 별천지) <배짱 좋은 웅기촌 사람들>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 <나는 기다려요> <별을 찾는 아이> <숲을 어루만지는 손> 그림책과 원화 등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책 중 지난해 말 발간된 <숲을 어루만지는 손>은 영암 구림(鳩林, 비둘기 숲)에서 태어난 도선국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주인공 별이와 도선국사 할아버지가 상처받은 숲을 치유하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를 살리는 생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별을 찾는 아이>는 주인공 온이와 아빠가 백제 왕인박사가 공부했다고 전하는 책공에서 밤하늘의 별을 찾아보며 천자문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다.

7권의 영암 이야기 그림책은 영암·학산·삼호도서관에서 대출해 주고,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나머지 그림책도 차례로 발간해 영암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미있는 영암 이야기를 전국에서 쉽게 접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3월경에는 남생이, 한석봉, 여석산·삼호도서관에서 대출해 주고,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개막한 '2025 입주작가 성과전'이 개막과 동시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전에는 국내 작가 5명과 해외작가 3명 등 총 8명의 도예가가 참여했으며, 개막 이후 한 달 사이에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전시는 고흥의 흙과 전통 분청 기법을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와 창작 결과물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국내 작가는 물론 해외 입주작가들도 참여해 전시 전반에 색다른 맛과 국제적인 감각을 더했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주작가 성과전, 색다른 멋 선보여

8인의 참여 작가, 고흥 흙으로 빛은 분청 예술

다. 특히 에콰도르 출신의 토마스 카르피오(Tomás Carpio)의 작품은 신화와 상상 속 존재들을 점토로 형상화한 조각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환상적인 세계를 구현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성과전은 국내 관람객은 물론 해외 도자기 수집가와 작가들의 발길을 끌며 고흥분청사기의 예술성과 가치를 세계

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작가 성과전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국제적인 창작·연구·교류를 아우르는 도예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아직 관람하지 않은 분들은 박물관을 찾아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군민이 만드는 음악도시 강진! 2026 음악대학 수강생 모집

신규자 우대, 생활 인구로 모집대상 전격 확대

강진군이 음악을 사랑하는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배움의 장, 2026 군민자치대학-제11기 음악대학이 오는 2월 27일까지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진 음악대학은 우쿨렐레, 색소폰, 통기타, 합창 등 네 개 분야 각 15명 내외의 정원으로 꾸러지며, 입학식과 졸업 연주회

를 포함하여 총 30주간 정규수업을 운영하는 '군민의 일상에 예술이 녹아드는 생활형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년 이하 신규 수강생을 우대할 예정이며, 생활 인구까지 포용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강진군민'에서 '음악대



학 수강을 원하는 누구나'로 확대하였다.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대학 수강 신청 관련 내용은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개최

'새해를 여는 클래식' 희망찬 교향곡과 오페라

순천시는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공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교향악단 클래식공연을 오는 2월 8일(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새해를 여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정상급인 KBS교향악단과 지휘자 여자경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립팍의 협연으로 1부 가곡과 오페라를 2부는 교향곡 연주로 구성, 100분간 수준 높은 환상의 클래식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1부는 요한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윤학준의 <나 하나 꽃 피어>, 김효근 <첫사랑> 가곡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레하르 <쥬디타>로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이어 2부에는 '드보르작 교향곡 8번 G장조'로 열정적이고 웅장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의 향연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